

한가위... 그들이 있어 행복했네

대한적십자사 불교봉사회, 독거노인에 온정 손길



대한적십자사 불교 봉사회는 추석을 앞둔 9월26일 지역내 독거노인들을 찾아가 온정의 손길로 '행복'을 전했다.

어김없이 추석의 돌아왔다. 불과 6개월 전만해도 윤순자(65) 할머니에게 이번 추석은 꿈에도 그리지 못한 시간이었다. 몸이 아파 거동조차 할 수 없고 3명의 자녀들은 자신을 돌볼 수 없는 딱한 처지가 되자 죽고만 싶었다. 죽을 작정을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죽음을 기다리며 시체처럼 누워만 지냈다. 화려한 아파트촌의 그늘에 가린 판자집에 누워 쓸쓸히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대한적십자사 불교봉사회(회장 박추자) 봉사자들이 할머니를 일으켜 세웠다. 대한적십자사 불교봉사회의 단위회인 하나단위회(회장 심금희)의 한정자(50), 배운자(60) 봉사자. 지금 이들은 할머니에게 세 생명을 준 은인이 되었다. "맨 처음 할머니 집에 와보고 너무 놀랐습니다"는 한정자 봉사자는 "상위에 먼지가 3cm 두께로 쌓여있고 그 위엔 곰팡이까지 피어있어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장마철이라 지붕에서 새어 들어온 빗물에 흠뻑 젖어있는 요위에 할머니는 누워 있었다. 방안의 모든 가재도구를 들어내고 곰팡이가 덮여있는 물건들을 치우는데 며칠이 걸렸다. 죽을 끓여 할머니의 기운 회복을 도우며 일주일에 두 세 번씩 꼬박 꼬박 찾아왔다. 하루가 멀다하고 안부 전화를 드리고, 비

쓸쓸한 노후 비관하는 노인들
정기적으로 찾아가 '자식노릇'
식사·집수리 등 생활고 해결해주

가 오면 할머니 집을 먼저 격정할 정도였다. 한달에 한번 목욕탕에도 같이 가고 시장을 보러갈 때도 할머니를 부축해 함께 다녔다. 외로움과 무관심속에 죽음을 생각하며 슬로 세월을 보내던 할머니는 술 대신 밥을 끓여 먹으며 삶의 의지를 되찾았다. 요즘은 경로당까지 걸어가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좋아졌다. 아직 비가 올 때마다 새는 지붕이 큰 걱정거리지만 무허가집인데다 집주인이 따로 있어 수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수리하러도 집이라도 무너지면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되고 말기 때문이다. 지붕 때문에 걱정을 하던 배운자 봉사자는 "그래도 요즘 할머니 생활은 확 달라졌다. 밥술에 밥이 있으니 기분이 너무 좋다. 할머니 집에 쌀 들고 올 때가 우리 집에 쌀 살 때 보다 더 즐겁다"고 봉사의 보람과 기쁨을 들려줬다. "할머니, 차레상 차릴 장 보러 언제 갈까요? 목욕하러 같이 가셔야 하나까 내일은 어디 가지 말고 기다리세요." 봉사자들과 이런 저런 계획들을 세우는 할머니의 얼굴에 웃음이 슬며시 지나간다. "내가 다시 살아났죠. 모두 고마운 봉사자들 덕분에. 고맙고 미안하고. 이제 봉사자들 일손 좀 돌려고 불편한 몸이지만 조금씩 방 청소도 하고 그래요."

대한적십자사내의 유일한 불교봉사조직인 불교봉사회의 이러한 활동은 대한적십자사가 지원하는 1,000세대 중 우수 사례로 뽑혀 적십자사 홍보인 '인정의 샘터'에 소개됐다. 박추자 대한적십자사 불교봉사회 회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비행은 면대 있지 않다"며 "어려운 분들에게 손을 내밀어 마음을 나누는 일에 보다 많은 봉사자들이 동참했으면 하는 원력 하나로 봉사현장에서 뛰고 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지역불교현장을 찾아서

"밝고 맑게 키워야죠"

부산진구 청소년지원센터

자녀를 잘 키우고 싶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 그러나 양극화와 가정불화 등으로 기출, 학업 중단 등의 청소년 문제는 날로 늘어만 가고 부모들도 두 손을 놓고 마는 경우가 허다하다. 청소년 문제는 이제 더 이상 한 가정이나 특정 부모만의 아니라 전체 사회가 떠안고 가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부산진구청소년지원센터(소장 김금순)가 9월 25일 양정청소년수련관 4층에서 연 CYS (Community Youth Safety)-Net 출범식(사진)은 이런 관점에서 매우 주목받는 행사였다. 지역의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랐다. 청소년들에게 적극 손을 내밀어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을 돕겠다고 나선 곳은 학교 17곳, 공공기관 7곳, 경찰서 산하 지구대 2곳, 사회복지 및 청소년 관련 유관기관 15곳, 의료기관 3곳 등이다. 양정청소년수련관 관장 범산 스님은 "청소년 사업은 금방 성과가 드러나는 사업이 아니라서 더욱 어렵다"며 "그러나 모든 형식을 벗어 버리고 진솔하게 청소년들을 함께 키우겠다는 마음 하나로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길을 찾아 나가도록 지역내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향후 부산진구 CYS-Net은 위기청소년을 빨리 발견하는 일부터 관심을 기울인다. 학교, 동사무소, 상담기관 등이 유기적인 연관을 가지고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나가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구체적인 지원 서비스를 펼치게 된다. 법률적, 의료적, 경제적, 환경적 서비스를 보다 상세하게 펼쳐지며 민간단체 연계기관, 지역사회 연계기관, 청소년 위원회 지원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된다. 청소년들이 도움이 필요한 시점에 즉시, 또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9월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펼쳐지는 CYS-Net은 2006년을 구축 기초 단계로 2007년에는 내실화 및 안정화를 기하고 2008년 활성화를 목표로 연관단체나 전문가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천미희 기자



CYS-Net 출범시켜 청소년 문제 해결 나서

유관기관과 연계 법률 등 실질적 도움 줄 것

자랄 수 있도록 지역 내 유관 단체나 전문기관들이 힘을 모으겠다고 한자리에 모였다.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체계로 청소년들을 내 아이처럼 보살피겠다는 것이다.

이번 출범식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을 뜻하는 CYS-Net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부산진구에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보살필 커다란 사회적 울타리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산진구청소년지원센터가 위치한 부산진구는 전체 부산 청소년인구 85만명 가운데 10만5천명의 청소년인구가 몰려 있는 구인대다 서면 등 유흥가가 인접해 유동 청소년 인구는 더욱 많은 지역이다. 청소년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CYS-Net 출범이 갖는 의미가 더욱 크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청소년문제는 지역 내에서 적극 해결한다"는 취지로 출범한 CYS-Net에는 범산 스님과 이승훈 부산진구청 복시사업과장을 비롯해 교수, 교장, 복지원 원장 등 10명의 운영위원과 각 복지관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로 구성된 16명의 실행위원, 44개의 협약기관이 손을

잡았다. 부산 범어사(주지 대성)는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범어사 개산 1328년을 기념하는 개산문에 대제전을 개최했다(사진). '범어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범어사 개산문에대제전은 22일 의상대사 개산대제 법요식을 시작으로 길놀이 등으로 진행됐다. 22일 열린 법요식에서 범어사 주지 대성스님은 "이번 행사는 여러분과 스님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의 자리"라며 "우리가 함께 어울려 화합을 노래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발원하는 자리로 만들자"고 말했다. 이은기 기자

'개신교 망발' 강력 대응 재확인

진상조사위 2차 실무회의서, 자료 배포해 심각성 알릴 것

부산지역 개신교 청년연합회의 기도회에서 사용된 '사찰이 다 무너지도 록'이라는 기도 문구와 관련해 9월 18일 꾸러진 진상조사위는 27일 2차 실무회의를 열었다. 범어사 총무국장 범산 스님, 포교국장 무관 스님,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순정현 회장, 왕선자 부산불교여성 불자회 회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불교계 내부의 힘을 결집해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를 중심으로 우선 부산시내 모든 사찰에 지난 6월 4일 열린 부산 개신교 청년연합회의 기도회 자료를 시도로 만들어 배포해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타 종교단체, 정치인 등에도 자료를 보내

기도했다. 특히 이명박 前 서울시장에 이 행사에서 축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항의서를 작성하고 불교법조인회등과 연계, 부산개신교 청년연합회에 대한 법적 조치도 강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10월 2일 3차 회의에 이어 지속적으로 모임을 가지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내년 초쯤 대규모 법회를 열어 불교계 내부의 뜻을 한데 모으아갈 방침이다. 범산 스님은 "이번 사태는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며 "내 종교만 옳고 다른 종교는 존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종교인으로서의 있을 수도 없는 사고방식인만큼 올바른 종교관을 바로 세우는데 불교계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천미희 기자

남해 화방사 14일 산사음악회

남해 화방사(주지 호연)는 10월 14일 오후 5시 화방사 대웅전 큰마당에서 '2006년 화방사 산사음악회와 연등축제'를 연다. 남해군민과 화방동산 자원봉사자, 후원자들 비롯 관광객 등 2천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 이번 음악회에는 장사익, 마야, 성진 스님, 남해 출신 가수 태수, 남해성당 성가대 등이 출연한다. 천미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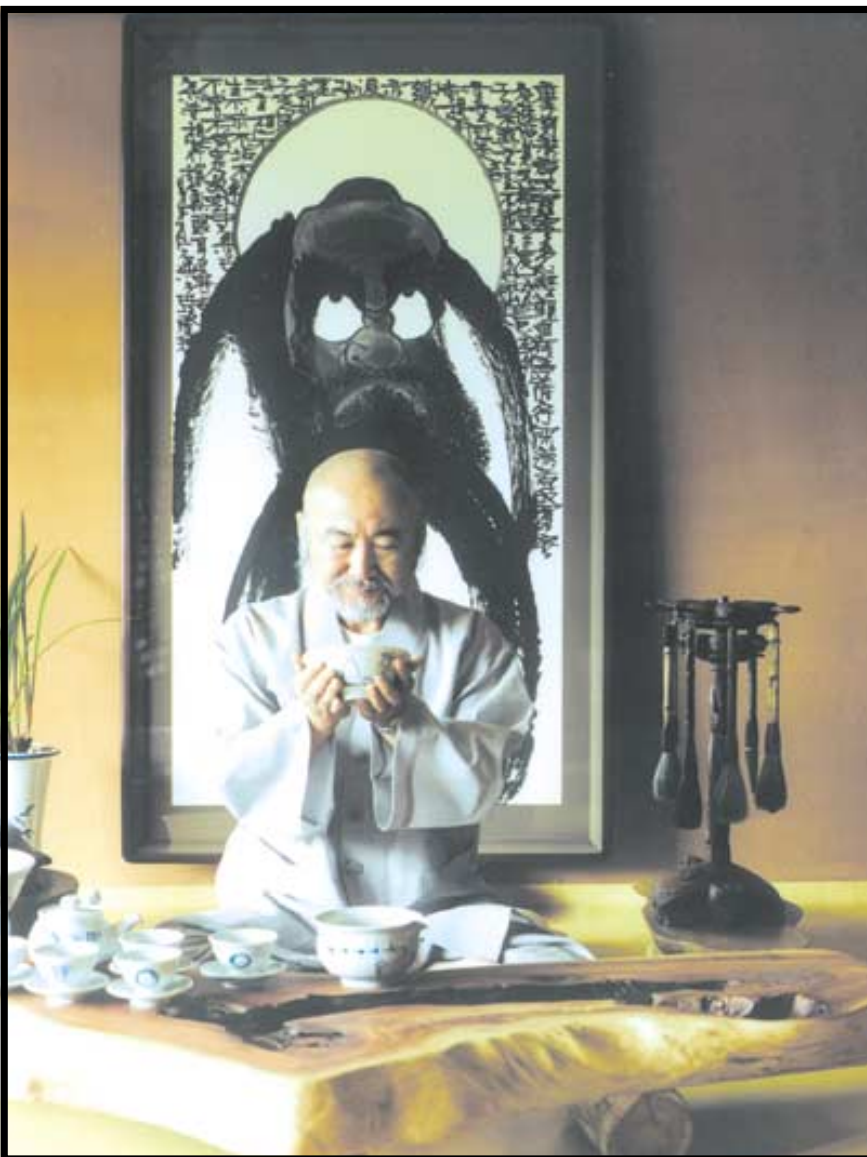
"불교 바탕으로 교류 활발하길" 한일불교 여성부교류대회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 주최로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제2차 한일불교 여성부교류대회가 열렸다. 한·일 대표단은 27일 부산 삼광사 및 삼랑진 정토원 호심주모관을 참배하고 28일에는 안양 석남사 예불에 참석한 후, 부산 코모도 호텔에서 여성부교류대회를 가졌다. 한국 여성부 백대일심회장은 "26년동안 양국간의 교류를 해왔다"며 "앞으로 내실 있는 문화교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범어사, 개산문에대제전 성료



부산 범어사(주지 대성)는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범어사 개산 1328년을 기념하는 개산문에 대제전을 개최했다(사진). '범어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범어사 개산문에대제전은 22일 의상대사 개산대제 법요식을 시작으로 길놀이 등으로 진행됐다. 22일 열린 법요식에서 범어사 주지 대성스님은 "이번 행사는 여러분과 스님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의 자리"라며 "우리가 함께 어울려 화합을 노래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발원하는 자리로 만들자"고 말했다. 이은기 기자



범주스님 선묵(禪墨) 30년전

40여년의 광음의 흐름속에 참선과 예술을 하나로 참다운 나로 살기 위한 선묵일어(禪墨)는 나를 붙잡고 있는 변함없는 화두가 되었습니다. 선묵은 나의 수행방법이고 포교의 방편이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회가 본성의 마음을 나누는 마당이 되기를 합장 기원합니다.

서울전시회

제1전시장 - 조계사 국제선센터 건립을 위한 선묵화전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전시장 (02-732-2183)
일 시 : 10월 13일 - 23일 / 개막포퍼먼스 13일 오후 2시

제2전시장 - 선차 발전을 위한 선차, 다기, 선다화전

장 소 : 시간동 법련사 전시장 (02-733-5322)
일 시 : 10월 13일 - 31일 / 개막포퍼먼스 13일 오후 6시

부산전시회

장 소 : 부산국제신문사 화랑 (051-500-5144)
일 시 : 11월 10일 - 20일 / 개막포퍼먼스 10일 오후 3시
연락처 : 속리산 선문화예술원 (달마선원 054-535-0378)

- 주 최 : 조계사
- 주 관 : 선문화 예술원
- 후 원 : 총무원(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대한불교조계종), 불교 TV, 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 한국차인연합회, 명원재단, 한국차문화협회, 효당본가 반야로 차문화원, 범어사, 부산차인연합회, 승우회, 부산차인회, 여천차문화원

